

월요광장

사이렌이 부르는 달콤한 독배의 노래



심 옥 숙
인문지형 대표

벌써 3개월째, 육안은커녕 웬만한 현미경으로도 보기 어렵다는 바이러스 유행포에 모든 것이 휘돌리는 일상이다. 이 정도면 과연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말이 여전히 유효한 것인가 묻고 싶어진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흐트러졌던 일상이 당연히 제자리로 되돌아갈 것이라는 생각은, 속도 없고 근거도 없는 기대였음이 드러나는 요즈음이다. 이런 가운데 그래도 얻는 깨달음이 있다면 반복과 습관으로 여기던 일상이 평안해서 ‘일상적’일수록 사실은 고마운 일이라는 것이다. 사람은 익숙한 궤도를 벗어나지 않는 단순하고 명료한 일상을 통해서 오 늘처럼 내일도 우리의 삶이 지속될 것이라는 믿음을 얻는다.

지금의 전 지구적인 재난 상황을 개인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는 것은 결코 아니다. 평범하고 평화로운 개인적 삶의 일상은 공동체적 합의를 통해서 더 견고하게 회복될 수 있다. 그리고 이 합의를 만들어 내는 일을 우리는 선거라는 이름으로 행한다. 문제는 이런 선거철에 사이렌들의 요란하고 화려하며 자극적인 노래가 더 거세진다는 것이다. 이 노래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는 트로이 전쟁의 영웅 오디세우스를 통해서 가능할 수 있다.

그리스 고전 ‘오디세이아’의 주인공 오디세우스는 트로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후에 단 한 가지만을 목표로 한다. 가족이 있는 고향, 이타카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의 소망은 전쟁 때문에 떠난 집, 그리고 가족과 나누던 일상을 되찾는 일이었다. 하지만 오디세우스는 신들의 노여움으로 10년 동안 바다를 떠돌면서 온갖 고난을 겪어야 했다. 그중 하나가 사이렌이 부르는 노랫소리의 유혹을 견디어 내는 것이었다. 사이렌은 반은 독수리이고 반은 사람의 모습인 바다의 요정들로, 지중해에 살면서 지나가는 뱃사람들을 거부하기 힘든 유혹적 노래로 유인한다. 사이렌의 노래는 너무나 아름답고 치명적이어서 듣는 순간부터 뱃사람들은 정신없이 노래가 들려오는 곳으

로 스스로 다가가서 목숨을 잃곤 했다. 아름다운 노래가 이끄는 방향은 죽음으로 가는 길이었던 것이다.

이런 사이렌 이야기를 전해 들은 오디세우스는 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한다. 마침내 사이렌의 노래가 들려오자 그는 선원들에게 미리 준비한 말남 귀마개로 귀를 막게 한다. 단 한 사람, 오디세우스 자신은 귀를 막는 대신 몸을 기둥에 단단히 묶어 두도록 했다. 오디세우스 같은 영웅마저 사이렌의 노래에 귀를 막는다면 그 노래가 얼마나 달콤하며 그 달콤함이 어떻게 죽음의 파멸을 부르는가를 증언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과연 노래의 주술은 너무나 강해서 오디세우스 또한 사이렌을 쫓아 바다로 뛰어들고 싶은 마음에 몸부림을 치지만, 이를 미리 알고 있던 선원들은 그를 더 강하게 결박한다. 이렇게 해서 오디세우스는 사이렌이 부르는 노래의 마법을 이겨 내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반면에 오디세우스를 유혹하지 못한 사이렌은 치욕감을 이기지 못해 죽음을 택한다. 사이렌의 노래가 유혹하는 힘을 잃으면 사이렌 또한 존재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오늘날 사이렌은 신화 속 사이렌의 의

미와는 달리 경보음의 뜻으로 쓰인다. 경보음을 뜻하는 사이렌은 속임수와 유혹의 노래로 사리 분별력을 빼앗고 죽음의 길로 몰아넣는 것과는 반대로 눈앞에 벌어지는 위험한 상황을 알려 주는 역할을 한다. 1819년 프랑스의 투르라는 발명가가 위험을 경고하는 장치에 사이렌 노래의 상징을 뒤집어 사용하기 시작한 데서 유래했다.

사람 사는 데에 사이렌의 노래가 없는 곳이 없지만, 특히 주기적으로 돌아오는 선거철에는 작정하고 나서는 사이렌의 노래가 유독 더 요란해진다. 저마다 자신들의 노래야말로 가장 아름답고 진실한 노래라고 목청을 높인다. 하지만 이들의 노래가 달콤한 속임수는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행해야 하는 책무다. 듣기에 달달하고 매혹적이라고 해서 독배의 노래에 무작정 홀리는 것처럼 자신의 미래에 가하는 어리석고 어리석은 일이 있겠는가. 사이렌의 유혹에 따른 선택은 건강하고 평화로운 일상의 주인이 가는 길은 아니기 때문이다. 덧붙이자면, 사이렌의 노래는 기꺼이 속임수에 홀리고 유혹당하고 자 하는 사람들에게만 치명적인 힘을 발휘한다.

기 고

4·19의 ‘고등’학생과 4·15의 고등 ‘학생’



정 범 중
소설가

라면을 자주 끓이게 된다.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르다 보니 벌어진 일이다. 라면을 끓이면 곡선과 직선을 만나게 된다. 마트에서 사 오는 어느 라면의 면발은 곡선이다. 이게 뜨거운 물에서 펼쳐져 직선에 가깝게 된다.

면발에서만 곡선과 직선을 만나는 건 아니다. 나는 라면에 계란은 넣지 않지만 대파는 꼭 넣는다. 그런데 송송 썬, 동그란 대파 조각은 넣지 않는다. 그건 된장국이나 우동에 어울리지 라면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라면의 긴 면발에 어울리려면 대파 역시 길이가 있어야 한다. 나는 대파를 손가락 크기의 토막으로 잘라서 가로로 길쭉하게 썬다. 이런 대파는 처음에야 직선이지만 라면과 함께 끓이면 곡선이 된다.

라면을 먹으면서 뉴스를 보면 코로나

19 못지않게 4·15 총선이 많이 나온다. 나는 선거 역시 라면 끓이기처럼 직선과 곡선을 볼 수 있는 곳으로 여긴다. 평소에는 쉬 만나기 힘든, 그러니까 상당히 뻘뻘한 이들이 선거철에는 허리를 굽힌다. 직선이 곡선으로 변한 것이다. 유권자들은 어떤가? 전에는 권력자들을 만날 때 은연중에 허리를 굽히고 인사했다고 해도 선거철이 되면 고개를 들고 악수한다. 곡선이 직선으로 바뀌었다고 할 수 있다.

라면의 맛은 곡선과 직선이 어울려 있을 때이다. 면발이 확 풀어져서 곡선의 느낌을 모조리 상실해 버려서도 안 된다. 곡선이 직선을 품고 있어야 한다. 대파 역시 너무 익어서 흐느적거리면 안 된다. 대파가 그 맛을 부드럽게 지니고 있을 때는 직선이면서 곡선을 품고 있는 때이다.

정치에서도 이런 곡선과 직선이 어울려 있어야 한다. 힘겨워하는 국민을 품어야 하고 더 나은 세상으로 가는 곧은길을 제시해야 한다. 힘겨워하는 국민을 품는 데만 온통 정신을 쏟으면 포퓰리즘에 떨어져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그렇다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한다면서 힘겨워하는 이들을 외면하는 건 개발 독재에 불과하다.

이번 4·15 총선에서 유권자들은 이런 곡선과 직선이 잘 어울리는 세상이 되도록 투표권을 잘 행사하리라 믿는다.

이번 총선은 아주 중요하다. 어떤 선거든 중요하지 않은 게 없지만 이번 총선은 이전과는 다른 특징이 있다. 18세가 지 선거권이 확대된 것이다. 이제 고등학생들도-일부이긴 하지만-정치에 직접 참여하게 된 것이다. 고등학생들이 정치 전면에 나선 건 50년 전의 4·19이다. 전국에서 고등학생이 독재 정권 타도를 위한 시위에 참여했다. 광주에서는 단순히 참여한 정도가 아니었다. 광주고를 비롯한 다수의 고교에서 뛰쳐나온 고등학생이 시위를 주도했다. 서울의 경우 대학생이 시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데 광주에서는 고등학생이 그랬던 것이다.

4·19 혁명은 성공했으나 고등학생은 물론 20세 미만의 대학생도 정치에 참여하지 못했다. 선거권은 어른에게만 있었고 피선거권 역시 마찬가지였다. 젊은이들에 의해 성공한 혁명은 기성세대에게서 표류하다가 유실돼 버렸다.

그 후 이 나라 정치권은 고등학생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았다. 4·19 혁명에 참여했던 이들마저도 고등학생에게 선거권을 주는 데 적극적이지 않았다. 그렇게 5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다. 몇 년 전 예야 18세 이상에게 선거권을 주는 일이 공론화됐고 작년에 가까스로 개정된 선거법이 통과됐다. 여기에 나이 든 이들 상당수가 반대했다. 왜 반대하느냐고 나는 물었다. 그들의 대답은 이렇게 요약됐다.

‘1960년 당시 고등학생은 세상을 위해 고민한 지성인이었다. 지금의 고등학생은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에 불과하다.’

나는 예전에 ‘고등’학생이 있었고 지금은 고등 ‘학생’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4·19 당시의 고등학생이 독재 타도를 위해 시위에 나섰듯이, 지금의 고등학생도 더 나은 세상을 위해 길을 찾아가고 있다. 예나 지금이나 그들은 세를 고 행동한다.

우리는 이번 총선에 참여하는 고등학생에게 우려보다는 기대를 가져야 한다. 예나 지금이나 고등학생은 이 나라의 기대이다. 이런 기대에 부응해서 4·15 총선에서 투표권을 가진 고등학생들이 어른들 못지않게 투표권을 잘 행사하리라 믿는다.

그리고 코로나19 사태가 끝날 때까지 라면도 계속 끓일 타이다. 곡선과 직선이 어울리는 걸 보면서.

제4세대 방사광가속기를 호남에 유치하기 위해 광주·전남·전북의 각계 인사들이 유치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유치위원들은 호남권에만 가속기가 없다는 점을 들며 나중에 제4세대 방사광가속기 설치를 위한 전방위 유치전에 돌입했다.

지난주 정식 출범한 ‘방사광가속기 호남권 유치위원회’는 호남권 광역단체장과 현역 국회의원, 향우회장, 시민 사회단체 대표, 대학 총장, 상공회의소 회장, 기업체 대표, 과학기술 관련 국제 연구기관장 등 200여 명으로 구성됐다. 공동위원장은 이용섭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조환익 전 한전 사장, 우윤근 전 주러시아 대사, 김도중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이사장, 박동욱 전 한국광기술원장 등이다.

앞으로 호남권 유치위원회는 유치당 위성에 대한 대 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민간 차원의 유치 지원 활동을 펼치게 된다. 또 정부를 상대로 지속적인 유치 건의

社 說

전국 최고 사전투표율 본투표로 이어지기를

4·15 총선 사전 투표 결과 전남·전북·광주 등 호남권 유권자의 투표율이 전국 상위권을 기록하며 전국의 투표율을 역대 최고치로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0일과 11일 진행된 사전 투표에 총 4399만 4247명의 선거인 중 1174만 2677명이 참여, 26.69%의 투표율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사전 투표가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처음 도입된 이래 가장 높은 것인데 이에 대해 여야는 ‘코로나 국난 극복을 위한 표심의 결집’이라거나 ‘정부 심판 열기’ 등으로 저마다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있다.

시도별로는 전남이 35.77%로 전국 1위를 기록했고, 전북 34.75%, 세종 32.37%, 광주 32.18% 순으로 나타났다. 역대 선거에서도 광주·전남의 사전 투표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4년 전 20대 총선에서는 전남이 18.85%로 전국 최고였고, 광주도 전국

평균을 훌쩍 웃도는 15.75%를 나타냈다. 이번 총선에서는 20대 총선의 두 배에 가까운 투표율을 기록해 더욱 고무적이다.

당초 정치권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선거에 대한 관심이 낮아져 투표 참여가 저조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이런 상황에서 투표율이 상승한 것은 감염에 대한 우려로 사람이 많이 몰리는 본투표보다 한산한 사전 투표를 택한 유권자가 많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코로나 사태 이후 우리의 미래는 이번 총선 투표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는 이처럼 높은 사전 투표율이 전체 총선 투표율 상승으로 이어질지에 관심이 쏠린다. 호남 유권자들은 역대 선거에서 매우 높은 수준의 정치의식을 보여 줬고 예외 없이 시대정신을 잘 반영하는 정치 세력을 선택했다. 전국 최고의 투표율이 이를 앞으로 다가온 본투표에서도 이어졌으면 한다.

방사광가속기 호남 유치도 한전 이전 때처럼

제4세대 방사광가속기를 호남에 유치하기 위해 광주·전남·전북의 각계 인사들이 유치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유치위원들은 호남권에만 가속기가 없다는 점을 들며 나중에 제4세대 방사광가속기 설치를 위한 전방위 유치전에 돌입했다.

지난주 정식 출범한 ‘방사광가속기 호남권 유치위원회’는 호남권 광역단체장과 현역 국회의원, 향우회장, 시민 사회단체 대표, 대학 총장, 상공회의소 회장, 기업체 대표, 과학기술 관련 국제 연구기관장 등 200여 명으로 구성됐다. 공동위원장은 이용섭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조환익 전 한전 사장, 우윤근 전 주러시아 대사, 김도중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이사장, 박동욱 전 한국광기술원장 등이다.

앞으로 호남권 유치위원회는 유치당 위성에 대한 대 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민간 차원의 유치 지원 활동을 펼치게 된다. 또 정부를 상대로 지속적인 유치 건의

에 나서고 기업체·연구기관 등 각계각층의 유치 분위기 확산 활동을 주도할 예정이다.

방사광가속기는 화학, 생물, 전기, 의학 등 기초연구는 물론이고 반도체, 바이오 신약, 2차전지, ESS, 미래 청정 에너지, 신소재 개발 등 모든 과학 분야에 걸쳐 활용되고 있는 국가 대형 연구시설이다. 국내에는 포항공대가 총2기(3세대 원형, 4세대 선행)의 방사광가속기를 운영 중이며, 경주에 양성자, 대전에 중이온, 부산에 중입자 가속기 등이 있으나 호남에는 하나도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에너지 연관기업이 집적돼 있으며 안정적인 기반과 미래 확장 가능성 등 최고의 입지조건을 갖춘 호남에 방사광가속기를 유치한다면 균형발전의 큰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혁신도시에 한전이 올 수 있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상생의 정신으로 힘을 모아 방사광가속기를 반드시 나중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하자.

無 等 鼓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را 일락을 키우고/ 추억과 욕망을 뒤섞으며 / 봄비로 잠든 뿌리를 깨운다/ 겨울은 오히려 따뜻했었다/ 망각의 눈(雪)으로 대지를 덮고/ 마른 구근(球根)으로 작은 생명을 키워왔으니”

영국의 시인 T.S. 엘리엇은 ‘황무지’에서 4월을 ‘가장 잔인한 달’이라 했다. 북유럽의 4월은 대기가 불안정해 흐린 날이 많다. 짙은 티우기 위해 생살이 벗겨지는 쓰라림을 감내하는 여린 새싹에서 시인은 애처로움을 느꼈던 모양이다.

우리의 기억 속에 드리워진 4월의 이미지 또한 무참하고 가혹하다. 지난 2014년 ‘근현대 최대 참사’로 꼽히는 세월호 침몰이 있었다. 제주도 수학여행을 떠났던 안산 단원고 학생 등 모두 305명이 영원히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가만히 있으라”는 억압의 권위주의와 만연된 안전불감증, 무능하고 부패한 정권이 맞물려 일어난 대참사였다.

4·19혁명이 있었던 1960년 4월도 고통의 역사로 기록돼 있다. 이승만 독재와 부정부패, 부정선거로 촉발된 시위는 남원

출신 김주열 학생의 죽음을 계기로 들불처럼 번졌다. 푸른 청춘들이 들고 일어났다. 4·19정신은 80년 광주민중항쟁 등 이후 민주화 운동으로 이어졌다.

2020년 4월 또한 잔인하고 무참하기 이를 데 없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사태로 패닉 상태에 빠져 아직까지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으니 말이다. 사망자가 늘어나고 장기간 조짐을 보이면서 불안과 우울의 그림자 또한 짙어지는 형국이다. 전염병이 더이상 특정 지역이나 특정 국가의 문제가 아닌, 인류 공통의 화두가 됐다는 것은 그 자체로 암울한 소식이다.

인디언들은 4월을 ‘만물이 생명을 얻는 달’로 표현한다. 강가의 얼음이 풀리고, 생의 기쁨을 느끼게 하는 달이라는 의미다. 21대 국회의원을 뽑는 4·15 총선이 이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는 4월을 기억하게 하는 또 다른 변곡점이 될 것이다. 인디언들은 또한 4월을 ‘머리맡에 씨앗을 두고 자는 달’로 비유한다. 우리의 이번 선거가 생명과 희망을 틔우는 ‘씨앗’이 되었으면 한다.

/박성천 문화부 부장skypark@

기 고

코로나 19 ‘보성 의병 정신’으로 이겨낸다



최 병 만
보성군 부군수

개나리, 진달래가 피고 지니 그 자리를 뺏듯이 채우고, 뺏듯이 다하니 아팝나무와 철쭉이 봄을 매우려 꽃망울을 머금는다. 산천은 의구하다는 옛 시인의 말처럼 코로나19를 아는지 모르는지 꽃은 자기만의 아름다운 색깔로 자태를 뽐낸다.

하지만 왠지 애처롭다. 예쁘게 보아달라고 피었것만 머무는 눈길에 없어서 인가? 왜 하필 봄꽃이니? 왜 하필 올해 피었니? 맘을 붙여보지만 그저 매양 피어날 뿐이다.

피어니는 건 꽃만이 아니다. 국가가 어려워지니 보성의 의병 정신도 피어난

다. ‘보성 마스크 의병단’이 대표적이다. 독립을 원하며 만세를 외쳤던 3·1운동의 유관순 열사처럼 1980년 5·18 민주화운동에서 학생들에게 주먹밥과 도시락을 전하던 어머니의 손길처럼 코로나19를 이겨 내기 위해 모든 군민에게면 마스크를 제작해 보급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여기에 보성군 여성단체협의회와 소비자교육중앙회 등 10개 봉사단체와 군민 200여 명의 봉사자들이 나서 주었다.

급기야 84세 김갑순 할머니까지 “나에게 후손들에게 마지막으로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며 힘차게 재봉틀 페달을 굴렸다. 드룩 드룩... 2주 동안의 재봉을 소리는 군민들에게 봉사와 나눔과 배려라는 애양의 기적(汽笛)소리로 다가왔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연대와 배려로 보성이 하나 뭉칠 느끼는 순간이었다. 현장에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군민들께서 ‘보성 마스크 의병단’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드디어 지난 3월 20일 4만2000개의 면 마스크 작업을 끝냈

고 3월 31일까지 전 군민에게 필터 5매와 함께 보급까지 마쳤다. 고개도 아개도 아프고 몸은 고단하였지만 마음은 군민을 지켜냈다는 뿌듯한 여운으로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재봉선 한 땀 한 땀에 자식 사랑을 담았고 어르신에 대한 효심이 갈무리된 마스크이건만 환한 군민들의 얼굴을 가리는데 쓰인다는 현실이 안타깝다.

그뿐인가? 보성의 의병 정신은 단순히 보성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충남 아산과 충북 진천에 격리된 700여 명의 중국 우한 교민에 보성 녹차 1720세트와 녹차 음료 105박스, 대구 북구에 250박스, 대구·경북 ‘사랑의 도시락 보내기’에 동참해 300박스, 대구 확진자가 머무는 순천의료원에 녹차 200박스와 오막만두 10박스, 서울 지역 의료진과 환자에게는 ‘건강 기능성 음료 보내기’ 300박스를 전달해 어려움을 함께 나누자는 마음은 지역의 경계를 넘어섰다. 과연 보성이다.

여기에 더해 지금 보성은 의병 정신바

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다. 교회 집회도 못 여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1400만 원의 성금을 기탁한 17개 교회 목사님, 전국 시장·군수 중에서 최초로 급여 30% 반납을 선언한 김철우 군수, 여기에 동참해 모든 공무원들이 2억 원의 지역사랑 상품권 구입과 함께 2000만 원의 성금도 모았다. 특히 배정된 상품권 구입액보다 더 구입하겠다고 나서 목표액 2억 원을 넘어서는 2억 5000만 원의 상품권 구매 실적을 보여준 따뜻한 직장 동료들은 필자의 마음 속에서 파스나 올림의 노래가 되었다.

차생산자조합과 차생산 농가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면역력에 좋은 보성차 3000세트를 임시일반 모아 관내 음식점 600개소와 사회복지시설 16개소에 ‘차나눔’을 실천했다. 이런 곳에서 부군수를 하고 있는 필자는 어찌 아니 행복하겠는가. 오늘은 열선루에라도 올라 마지막 이순신 장군이라도 된 양 ‘보성에는 의병 정신을 가진 4만 2000의 군민이 있습니다’라고 외쳐 보련다.